

역사 속의 커뮤니티, 미래의 커뮤니티

손세관 (중앙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거주(Dwelling)라는 단어는 지붕이 뚝뚝하다거나 몇 평의 규모를 갖기 있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첫째, 그것은 물건이나, 생각이나, 감정을 서로 교환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만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여러 가지 가능한 삶을 경험하는 것을 뜻한다.

둘째,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 동화하게 됨을 뜻한다.

즉, 어떤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다.

셋째, 우리 자신의 조그만 세계를 갖게 된다는 의미에서 자기 자신임을 뜻한다.

우리는 이러한 양상을 각각 집합적, 공적, 사적 거주라고 부를 수 있다.

크리스찬 노버그 슐츠(C. Norberg-Schulz)의 「거주의 개념」 중에서

1. 왜 커뮤니티를 이야기하는가?

‘인간의 삶’에 있어서 ‘커뮤니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커뮤니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으며 이웃과 함께 할 때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과 공유하는 일상생활을 통해 나의 존재가치와 주체성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커뮤니티를 통해서 사회적 관계를 이루고 동시에 자신의 주체성을 찾는 것이 ‘인간의 삶’이므로, 결국 커뮤니티는 ‘인간성(人間性)’ 그 자체를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커뮤니티는 인간이 영위하는 ‘거주(dwelling)’의 본질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커뮤니티란 어떤 장소나 지역을 공유하거나 또는 심리적인 친밀감이나 동질감을 통해서 생겨나는 것이다. 그 발생요인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장소적 커뮤니티’와 ‘비장소적 커뮤니티’로 구분된다. 전자는 장소를 통한 접촉에 의한 관계로, 그리고 후자는 장소를 초월한 의식에 의한 관계로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두 개념의 상보적인 조합으로 인해 커뮤니티의 본질인 ‘우리’의 개념이 형성되어진다.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면 인간의 삶에 어떤 긍정적 측면이 있는가? 그것은 당연히 삶의 질의 향상이다. 이는 심리차원의 감성적 풍요로움이 첨단과학기술이 가져다주는 생활의 편리함보다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커뮤니티는 인간의 정서적 풍요로움에 크게 관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이웃과 함께 하는 공유와 나눔의 삶을 통해, 인간은 감성적 풍요로움과 정서적인 만족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통해 인간은 ‘실존적인 나’를 깨닫게 된다. 그것은, 나의 존재는 항상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인식하기 때문이며, 타인의 삶을 통해서 내 삶의 방식을 돌아보고 적절한 방향을 설정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커뮤니티의 역할은 삶의 기본적 토대를 이루므로, 그것이 잘 활성화되었을 때 인간은 높은 질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 대도시의 아파트 단지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있는 반상회를 제외한다면 이웃간의 모임과 교류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우리는 흔히 미래의 주거환경을 이야기할 때 변화하는 가족상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사회에서 독립되고 고립된 가족상과 동등하게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 말하자면, ‘변화하는 가족상 = 고립된 가족상’이라는 등식이 미래의 주거환경을 특징짓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립된 삶을 즐기며 희박한 커뮤니티 의식을 가진 인간상을 장래 주거환경의 수요자로 설정한다면 우리는 미래의 주거환경에 대한 희망을 가질 것이 없다. 주거환경에 대한 근대의 이념이 실패한 것이라면, 그것은 가족을 독립된 단위로 설정하고 이를 물리적으로 강조한 데서 기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주거환경에 대한 획기적인 태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와있는데, 주거의 본질을 염두에 둔다면, 커뮤니티 의식의 회복과 이를 통해서 좀더 풍요로운 일상의 삶을 회복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2. 안정된 커뮤니티란 어떤 것인가?

커뮤니티의 개념과 그 성격에 대한 논의는 매우 다양하다. 또한 오늘날의 도시사회에서 어떤 성격의 커뮤니티가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에 있어서 항상 핵심이 되는 것은 커뮤니티의 형성이 물리적 환경과 관련되는가 아니면 그것을 초월하는 것인가의 여부이다. 즉 인간과 환경 사이의 관계가 커뮤니티 형성에 중요한가 중요하지 않은가의 문제가 논의의 초점이 되어왔다. 일부 학자들은, 인간이 자신이 거주하는 환경에 애착을 가지고 그것에 소속감을 지니면 사회적 교류가 증진되고, 결과적으로 커뮤니티는 활성화된다는 논리를 전개한다. 즉 커뮤니티는 지역과 장소에 기반을 둔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부류의 학자들은 이것과 상반된 논리를 전개한다. 즉 물리적 환경에 기반을 두고 이웃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삶의 방식은 과거에나 해당되는 것으로서, 오늘날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두 가지의 논리는 모두가 그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역과 장소를 초월한 인간관계가 가능해지면서 인간성이 소멸되는 현상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역사의 관점에서 살펴볼 때, 장소를 초월한 인간관계는 목적이나 이익을 바탕으로 하는 커뮤니티 형성으로 발전되었고, 이러한 커뮤니티가 일반화될수록 인간의 삶은 풍요로움에서 멀어지고 무미건조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근대이후 건축가들은 과거와는 그 모습이 전혀 다른 주거환경을 새로운 모델로 제시하였는데, 그 속에는 장소를 바탕으로 하는 커뮤니티에 대한 고려가 배제되었고, 인간과 물리적 환경과의 관계는 그 이전과 비교하면 매우 격리된 모습으로 설정되었다. 근대이후 오늘에 이르는 기간동안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커뮤니티의 상실'은 이러한 물리적 환경의 변화와 그 궤적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인간이 공간과 장소로부터 해방되면서 커뮤니티의 상실이 동시에 초래되었으며, 결국 인간다운 삶도 퇴색되어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커뮤니티의 형성은 어디까지나 지역의 물리적 환경을 기반으로 해야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안정된 커뮤니티'는 역시 장소적 커뮤니티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오늘날과 같이 일상적 행동의 범주가 넓어지고 인간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의 범주가 극한적으로 넓어진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폐쇄적 커뮤니티를 이상적 모델로 설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물리적 환경을 넘어서는 커뮤니티의 형성은 공유와 나눔의 삶을 어렵게 하고, 결국 커뮤니티 형성의 부산물인 인간의 감성적 풍요로움과 정서적인 만족은 기대하기가 어렵게 된다. 따라서 안정된 커뮤니티는 장소적 커뮤니티를 바탕으로 하면서 비장소적 커뮤니티가 그것에 상보적으로 작용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이다.

안정된 커뮤니티가 형성되기 위한 또하나의 전제조건은 지역의 사회적 환경과 물리적 환경이 구조적으로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지역의 물리적 환경이 사회적 환경인 커뮤니티를 적절하게 담을 수 있게 짜여지고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사회 전체가 하나의 큰 커뮤니티를 이루면서 크고 작은 커뮤니티가 그 안에 위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물리적 환경의 구조는 이를 적절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구성되어야 한다. 환경심리학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이 서로 '합치

(fitting)'되었다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물리적·사회적으로 안정된 환경이 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 1972년에 미국 세인트루이스의 '프루트 아이고(Pruitt-Igoe) 주거단지'를 폭파시킨 사건에 대해 건축계에서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는데, 이것 역시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이 합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초래된 것이다.

3. 근대 이전의 커뮤니티는 어떤 모습이었나?

근대 이전의 도시는 문화적 배경이 같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단일사회였다. 지금과 같은 빠른 교통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어난 마을이나 도시에서 일생을 마쳤다. 또한 도시의 규모도 작아서, 15세기를 기점으로 보면, 인구 10만 명을 넘는 도시는 채 다섯이 되지 않았으며, 대규모 도시라고 해도 인구 일만 명이 고작이었다. 인구 3천명 정도의 도시면 유럽에서는 꽤 큰 도시에 속했다. 도시의 상황이 이랬으니, 대부분의 마을은 인구 수백에서 일천 명이 고작이었다. 따라서 당시의 모든 도시나 마을은 매일매일 얼굴을 맞대고 살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폐쇄된 지역사회를 형성하였다. 또한 일상의 생활은 한정된 공간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당연히 특정한 장소를 사용하는 빈도수가 높아지고, 따라서 인간의 장소에 대한 애착과 상징적 소유의식은 매우 강했다.

근대 이전의 도시에서 커뮤니티는 그 성격과 지리적 범주가 위계적인 상호관계를 이루면서 형성되었는데, 커뮤니티의 위계적 체계는 네단계 정도로 구분할 수 있다. 1단계 커뮤니티는 사적영역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매우 친밀한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마당이나 집 앞의 길 등 가까운 지리적 위치에서 형성된다. 이 커뮤니티는 가족, 친지, 가까운 이웃으로 구성되는 가장 기초단계의 커뮤니티이다. 2단계 커뮤니티는 골목길이나 작은 광장 등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것으로서, 일상적·비형식적 교류로 이루어지며, 그것이 발생하는 물리적 환경도 사적영역의 연장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2단계 커뮤니티는 10가구(家口)에서 40가구정도가 모여서 형성하는 친밀한 근린으로서, 일상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있는 사회적 단위가 되었다. 3단계 커뮤니티는 2단계 커뮤니티보다 좀 더 확장된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서, 지구(地區) 단위에서 형성되는 것이었다. 유럽의 전통적인 도시의 경우는 교구(敎區)가 그 구성단위가 되었으며, 그 중심에는 교회와 광장이 있었고, 작은 규모의 시장이 서는 것이 보통이었다. 근대 이전의 도시에서는 이 3단계 커뮤니티의 형성은 명확하였고, 공적생활의 핵심이 되는 영역이었다. 따라서 이 커뮤니티의 상실은 주민의 정체성 상실과 직결되는데, 근대 이후의 도시사회에서 발생한 '커뮤니티의 상실'은 바로 이것의 상실을 의미한다. 인구 일천 명 이하를 이루는 마을의 경우는 이 3단계의 커뮤니티가 마지막 단계의 커뮤니티이다. 4단계 커뮤니티는 도시 그 자체를 이루는 큰 규모의 커뮤니티이다. 작은 도시에서는 3단계 커뮤니티가 3~5개정도 모여서 이루게 되고, 큰 도시의 경우는 수십 개가 모여서 이루는 것이다. 이 4단계 커뮤니티의 중앙에는 시청사와 대규모 교회당이 자리하고, 도시의 중심광장이 이들을 연계한다. 이 커뮤니티는 사회적 교류의 최대영역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인 도시민의 경우는 이 영역 이상의 사회적 교류를 경험하지 못하였다.

이상에서 살펴 본대로, 근대 이전의 도시에서 커뮤니티의 형성은 위계적인 구성을 가졌는데, 물리적 환경의 구성 또한 이러한 커뮤니티의 구성과 합치되었다. 유럽의 일반적인 도시에서는 커뮤니티를 위한 물리적 환경이 주택에서부터 시작하여 길과 소광장 그리고 광장으로 확대되어 나가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근대 이전의 서양도시에서는 길과 광장이 커뮤니티 구성의 핵이 되었고, 중국을 위시한 동양도시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위계적인 가로가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중심(center)과 통로(path)의 구조를 가지는 이러한 공간구조는 전통적인 도시공간의 특징을 이루고 있다. 작은 단위의 커뮤니티가 여럿 모여서 작은 포도송이 모양의 구조를 만들고, 이것이 다시 여럿 모여서 좀더 복잡하고 커다란 포도송이 모양을 구성하는 공간구조가 과거의 도시에서 보이는 공간조직이다. 이렇게 적절한 위계적 균형을 갖는 커뮤니티

니티 군(群)은 도시를 형성하는 요소로서 존재하고, 그것들이 서로 만나면서 겹치고 엮키는 과정을 통해 더 긴밀하고 유기적인 커뮤니티가 형성되어지는 것이다.

4. 베네치아: 역사적 커뮤니티 구성의 표상

지구상에 있는 도시들 중에서 커뮤니티의 구성이 물리적 환경을 통하여 가장 명확하게 표출된 도시는 어디일까? 이 물음에 대한 필자의 답은 베네치아이다. 필자는 그동안 다녀보고 연구해본 도시들 중에서 베네치아만큼 커뮤니티의 개념이 명확하게 표출된 도시를 보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베네치아의 공간구조를 살펴보면, 그곳에 담긴 커뮤니티의 구조가 명확하게 파악된다는 것이다. 물론 오랜 역사를 통해서 형성된 도시들은 당연히 그 공간조직 속에 그곳 나름의 고유한 커뮤니티의 구조가 각인되어 있다. 그것은, 오랜 기간에 걸친 도시형성의 과정을 통하여 시민의 생활패턴이 물리적 조직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베네치아의 경우는 그것이 더욱 뚜렷하고 명확하다는 것이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베네치아에는 남다르게 결속되고 응집된 커뮤니티가 형성되었으며, 동시에 그 위계적 상호관계가 뚜렷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베네치아는 역사적 도시가 지니는 커뮤니티 구성의 표상으로 인식되는 동시에, 강력한 도시의 커뮤니티가 물리적으로는 어떻게 표출되는가를 가르쳐주는 교과서가 되고 있다.

이탈리아의 북부에 위치한 베네치아는 섬의 도시이다. 말하자면, 육지와는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어 그들만의 사회구조와 고유한 도시문화가 비교적 잘 유지되어온 곳이다. 5세기 이후 외부의 침략자들로부터 도피하여 라구나(lagoon)에 있는 소군도(小群島)로 이주한 초기의 이민자들은 그들만의 독특한 사회구조를 형성하였다. 이후 각고의 노력 끝에 운하와 인공지반을 조성하면서 도시의 틀을 갖추어갔는데, 수십 개의 섬들이 모자이크처럼 모여서 전체 도시를 이루는 독특한 공간구조를 취하였다. 따라서 베네치아는 유럽의 여타 도시들과는 다르게 중앙에 강한 중심이 자리하여 그것을 중심으로 동심원적인 구성을 이루는 공간구조를 취하지 않았다. 대신 각각의 섬은 독자적인 커뮤니티를 구성하였고, 이것이 점차 서로 엮어지면서 도시는 전체적으로 통합된 구조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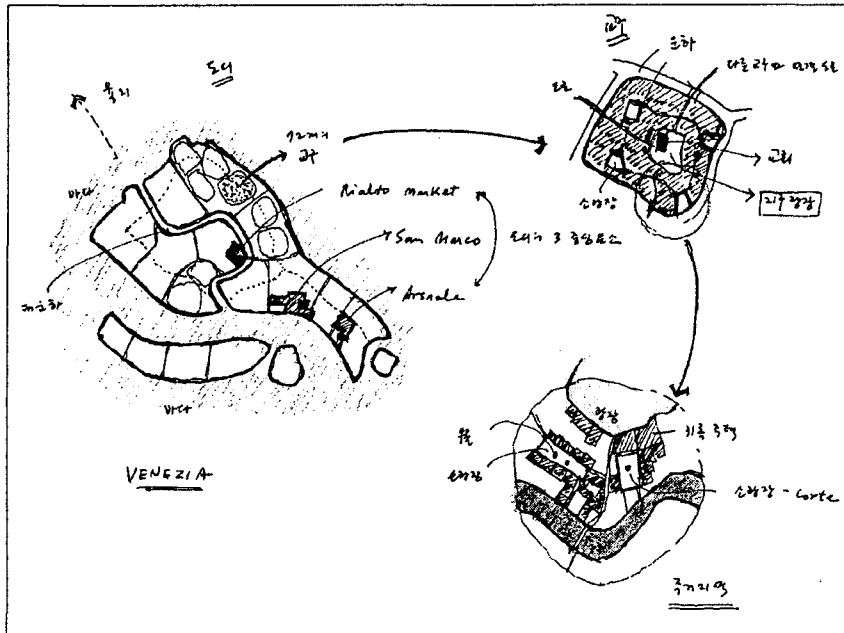


그림 1 베네치아의 공간구조

베네치아를 하나의 생물체라고 한다면, 그 생물체의 세포를 이루는 것이 72개에 달하는 교구(敎區)이다. 물론 이 교구는 물리적으로는 운하로 둘러싸인 섬이 된다. 베네치아 형성의 초기단계에 있어서 교구는 베네치아인들의 '생활의 장(場)'이었다. 교구는 이곳으로 이전하기 이전에 육지에서 이미 형성되었는데, 사람들이 이곳으로 이주할 때도 교구를 중심으로 이동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교구는 베네치아인의 공동생활의 단위가 되었던 것이다. '파로키아(parrocchia)'라고 불리는 교구는 정신생활의 지주인 교회와 그것을 관장하는 사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상당히 자립성이 강한 사회집단을 이루었다. 물론 중세의 여타 도시들에 있어서도 주거지역의 구성은 대부분이 교회를 중심으로 하였으므로, 교구의 성립은 비단 베네치아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베네치아의 경우는 고립된 지리적 상황 때문에 교구의 자립성이 더욱 강하였고, 지리적 조건도 그 자립성을 적절하게 뒷받침해주었던 것이다.

베네치아의 공간구조는 특이하다. 도시가 취하는 공간구조를 A라고 하면, A는 다시 수십 개의 작은 A 즉 A^a로 구성되는데, A와 A^a는 구조적으로 같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도시 전체가 이루는 공간구조는 교구가 이루는 공간구조와 같다는 것이다. 또한 하나의 교구는 그것보다 작은 여러 개의 커뮤니티 단위로 구성되는데, 이 작은 커뮤니티가 이루는 공간구조를 A^b라고 한다면 A^b는 A^a와 구조적으로 같다는 것이다. 베네치아의 중심을 이루는 공간은 산·마르코 광장(Piazza San Marco)인데, 산·마르코 성당과 마주하는 이 광장을 중심으로 싹틔줄처럼 운하와 도로들이 연결된다. 또한 각 교구를 수용하는 섬에도 그 중앙에는 교회와 광장(campo)이 있고, 여기서 중요한 간선도로가 뻗어나가고, 이 간선도로와 운하를 연결하는 가로들이 싹틔줄처럼 퍼져나가는 공간구조가 형성되었다. 또한 한 지구에는 요소요소에 작은 광장 또는 공터(corte)가 자리하여 이를 중심으로 작은 커뮤니티가 형성되며, 그 중앙에는 예외없이 우물(pozzo)이 자리하여 커뮤니티의 핵을 이루었다.

각 주거지의 공간구성도 이러한 위계성에 의해서 조직되었다. 운하나 광장에 면해서 유력가의 주택이 자리하면, 그 배후에는 길이나 공터를 중심으로 서민주택들이 군(群)을 이루면서 자리하였다. 서민주택들이 모여서 이루는 집합의 군은 적절한 단위로 서로 구분된다. 이렇게 집합의 군이 서로 구분되는 지점에는 아치 등이 설치되어 커뮤니티의 영역을 분명하게 해준다. 집합의 군은 골목, 공터, 작은 광장이 매개가 되며, 이들이 집합되어 더욱 커다란 커뮤니티로 발전된다. 이 작은 공공공간에는 당연히 우물이 자리하여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교류의 장을 마련해준다. 따라서, 베네치아는 앞서 언급한 네 단계의 커뮤니티가 명확한 위계를 형성하면서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위계는 도시의 물리적 조직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과거의 역사적인 도시들은 이것과 유사한 커뮤니티의 구조를 유지하였다.

5. 근대도시에 있어서 커뮤니티의 와해

근대 이전의 커뮤니티는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변화하였다. 변화의 속도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근대화를 겪은 서구의 도시들과 제삼세계의 많은 도시들은 사회구조의 변화와 함께 커뮤니티의 구조와 의식에 상당한 변화를 경험하였다. 과거처럼 상호관계를 이루는 위계적이고 유기적인 커뮤니티의 조직이 끊어지거나 탈색되면서 그 안정성에 많은 손상이 가해졌다. 이러한 사회적 구성의 변화는 물리적 구성에도 영향을 주어, 도시의 물리적 환경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이 전통적인 커뮤니티 구성에 영향받지 않고 자의적인 체계에 의해서 구성되었다. 따라서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 사이에는 과거와 같은 '합치'의 관계보다는 보다는 '불합치' 또는 '유리(遊離)'의 관계가 성립되었다. 이러한 관계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더욱 심화되었고, 20세기를 전후해서는 그 절정에 다다랐다. 도시에 있어서 커뮤니티의 와해는 여러 가지의 인과관계에 의해서 발생되었는데, 그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의 직주근접의 개념이 다른 개념으로 바뀌면서 발생되었다. 공업화와 상업화는 도시환경

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중산층 이상의 도시민은 굳이 복잡하고 비위생적인 도심에 거주할 이유가 없었다. 사람들은 자동차나 열차를 이용해서 일터로 출퇴근하기를 원했다. 이러한 중산층의 열망이 사회적인 상승작용을 불러일으키면서 직주분리가 가속화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분리가 명확하게 되었고, 커뮤니티의 구성 또한 연결·융화되지 않았으며, 주거지역에 대한 소속감과 장소성에 대한 애착심 또한 약화되었다. 다시 말해, 집이 완전히 사적영역으로 자리 잡으면서, 주위 환경과 긴밀한 관계를 이룬다는 것은 먼 과거에 있었던 일이 되어버린 것이다.

둘째, 사회적 관계의 지리적인 경계가 무너지면서 발생하였다. 과거에는 어느 정도 가까운 거리 이내에 가능했던 사회적 관계의 형성이, 장소를 초월하게 되면서 밀집되고 응축된 심리적·물리적 경계가 사라져버린 것이다. 전통적으로 커뮤니티는 작은 단위에서 큰 단위에 이르는 단계적 구성을 이루고, 그것은 지리적 경계에 의해서 구분되는 특성이 있었다. 그런데, 그러한 지리적 경계가 의미를 상실하면서 과거와 같은 결속력 있는 커뮤니티가 유지되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다. 커뮤니티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장소사이의 관계에 의해 형성되며, 그 결과는 결속력 또는 소속감으로 표출되는 것이다. 그런데, 어디에 있는 어느 누구와도 관계형성이 가능해지면서 이러한 결속력과 소속감은 서서히 와해되었다.

셋째, 이동성(mobility)의 증가로 뿌리내린 삶이 불가능하면서 발생하였다. 교통·통신체계의 변화는 사람들의 이동성을 증진시켰다. 과거와 같이 폐쇄된 사회에서는, 인간은 한 곳에 계속해서 머물러 살면서 제한된 인간관계를 유지하였다.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것은 아주 특이한 일이었다. 그런데 근대화는 사회구조를 복잡하게 만들었고, 사람들을 움직일 수밖에 없게 하였으며, 주거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혀주었다. 이동성의 증대는 인간이 특정한 사회적·물리적 환경과 관계하는 기간을 단축시켰고, 결과적으로 인간은 어느 곳에도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존재로 변화하였다.

넷째, 주거환경의 물리적 구조가 변화하면서 발생하였다. 근대화는 새로운 주거환경을 창출시켰다. 새로운 주거환경은 '위기상황'의 결과 도출된 것이었으므로 '완전히 새로운' 것이어야 하였다. 결과적으로 근대건축가들이 도출한 주거환경은 과거의 물리적 환경과는 그 성격이 너무도 다른 것으로서, 커뮤니티의 개념은 너무나도 포괄적이며 추상적으로 다루어져 있었다. C.I.A.M.(근대건축 국제회의)이 발표한 「아테네 헌장」에서도 사회적 공간 또는 사회적 교류를 위한 공간에 대해서는 전혀 규명되지 않았으며, 개개의 주거단위나 전체도시 사이의 여러 위계적인 공간에 대해서도 언급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렇게 도출된 주거환경은 인간의 커뮤니티 형성을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하고 말았다. 위생적이며 깨끗하고 생산에 있어서 효율성 있는 주거환경을 창출하려던 건축가들의 의도는, 커뮤니티의 와해라는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결과적으로, 넓은 가로와 녹지 위에 우뚝 선 고층아파트는 그 이미지에 있어서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물리적 환경이 되었을지 몰라도 인간의 풍요로운 삶, 커뮤니티가 활성화된 삶은 제공해주지 못하였다.

6. 커뮤니티 회복을 위한 일련의 노력들

1960년대는 주거환경에 대한 발상의 전환기였다. '시카고 학파'의 사회학자들은 도시의 생태적 구조를 중요한 화두로 설정하고, 도시의 사회적 환경과 물리적 환경을 새로운 눈으로 보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서민주거지역의 사회적 환경은 유기적인 구조라고 규정하였고, 근대건축이 도출한 새로운 주거환경으로는 이러한 구조를 담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제이콥스(J. Jacobs)는 1961년에 발간한 책 「위대한 미국 도시의 죽음과 삶」에서 근대건축이 만들어낸 모든 물리적 환경으로부터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 갈 것을 주장하였다. 근대의 새로운 환경은 과거의 전통적인 사회구조를 파괴시키는 주범으로 규정하고, 소규모의 순응형 개발만이 기존의 사회구조를 파괴시키지 않는 방법임을 주장하였다. 또한 이탈리아의 건축가 무라토리(S. Muratori)는 도시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을 모색하였고,

이것을 유형·형태학(typo-morphology)이라는 개념으로 제시하였다. 그는 건축이 추구해야 할 본질적인 가치체계는 '깨끗하고 기능적인'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대로부터 이어지는 전통적인 도시환경에 있다고 보았다. 전통적인 도시는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항상 적응과 변화를 지속하는 실체인데, 그러한 구조만이 전통적인 사회구조를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생각들은 모두가 새로운 주거환경에 대한 불만족과 과거의 주거환경에 대한 회귀를 요구하는 것인데, 그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적 환경과 물리적 환경의 불합치를 극복하는 것이다. 과거의 도시는 콜라주(collage)와 같았으므로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구조를 담을 수 있었지만, 근대의 도시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조형물들의 조합이므로 유기적인 사회구조를 담기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근대건축가들이 조성한 새로운 주거환경은 인간의 사회적·심리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정체성과 상징성이 존재하지 않는 무미건조한 환경이었다. 따라서 197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사람들은 과거에 있었던 '살기에 적합한 환경'을 염두에 두면서 주거환경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을 찾는다. 1970년대 이후에 제시된 주거환경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은 크게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다.

역사적 도시의 공간구조로의 회귀

근대건축의 공간구성 방식에 대한 대안으로 근대 이전의 도시구조를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즉 유기적인 조직체로서의 도시상을 염두에 두고 광장과 길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구조로 회귀하자는 움직임이 그것이다. 이러한 개념은 도시 전체의 기능적 구성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거처럼 복잡적이고 혼재된 기능들로 이루어지는 도시구조가 인간성에 맞는 구조라는 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러한 논리 속에는, 유기적인 도시구조가 달성될 수 있다면 그것에 적합한 유기적인 사회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는 생각을 지닌다. 이를 위해서 건축가들은 역사적 도시의 공간구조를 분석하고, 그것을 이루는 기본요소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오늘날의 도시조직 속에 짜넣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말하자면, 도시를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 기념비적 건물과 일상적 건물, 그리고 가로와 중정으로 구분하고, 이들을 적절한 위계를 통하여 구성하는 방법을 모색한다는 것이다. 도시구성에 있어서 역사적 회귀현상을 뚜렷이 보여주는 이러한 생각은 그것이 오늘날의 사회조직과 어떻게 부합될지는 아직은 미지수이다.

주거환경의 공간적 분절을 통한 사회적 위계성의 회복

주거환경의 공간구성을 큰 스케일에서 작은 스케일로 낮추고 세심한 공간적인 분절을 통하여 사회적인 위계성을 적절히 수용하자는 논리 또한 강하게 제기된다. 말하자면, 주거환경에 있는 외부공간을 공적·사적 공간으로 크게 나누는 대신 공적·반(半)공적·반(半)사적·사적 공간으로 단계적으로 나누고, 각각의 성격에 맞는 영역을 구분해서 부여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거환경을 유기적인 구성으로 전환시키고, 사회적 환경 또한 그것에 부합되게 유도하고 촉진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알렉산더(C. Alexander)와 뉴만(O. Newman)이 이론적으로 제기하였고, 1968년에 발족된 뉴욕의 도시개발공사(UDC,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가 이를 실천하였다. UDC가 시행한 프로젝트에서는 커뮤니티 공간의 중심으로서 골목(mews)을 도입하고,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 사이의 매개적 공간들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외부공간의 유기적인 분절화를 시도하였다. 커뮤니티 형성을 주요한 화두로 삼고있는 이러한 개념이 결정론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기는 하지만, 미래의 주거환경 계획에 있어서 지속적인 테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거환경에 장소성의 부여

주거환경에 심리적 측면과 상징적 측면을 부여함으로써 '의미 깊은' 환경으로 유도하자는 움직임도

주요한 경향의 하나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인간은 주거환경에 '소속되고' 그곳에 뿌리내림으로써 스스로의 정체성을 회복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인간과 인간사이의 결속력으로 발전하고, 결국 커뮤니티 의식이 풍부한 주거환경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1970년대 이후 등장한 실존적 현상학(existential phenomenology)이 바탕이 되는 이러한 논리는 미래의 주거환경 형성에 매우 강한 시사점을 부여한다. 이것은 기능주의와는 정반대에 있는 개념으로서, 기능보다는 의미를, 구성의 합리성보다는 정서적 풍요로움을, 이동성보다는 정체성을, 미래지향보다는 역사성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생각은 여러 주거환경계획에 반영되었는데, 모두가 기존의 계획과는 상당히 다른 접근방식을 취하였다. 즉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대체하는 재개발보다는, 의미있는 것은 남기고 없앨 것은 추려내면서, 점진적으로, 그리고 사용자가 참여하는 방식을 통해서, 아가지기하고 '이야기'가 풍부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려는 시도들이었다. 완전하게 새로운 환경을 만들 수는 없었지만,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7. 미래의 커뮤니티는 어떤 모습일까?

미래의 커뮤니티 상(像)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물론 미래를 어느 시점에 두는가에 따라서는 논의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질 것인데, 여기서는 지금부터 20년 정도 흘러간 시기를 시간축으로 설정해보자. 이러한 미래사회는 개인의 생활, 그리고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과는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해서 일상생활을 위한 물리적 환경과 도시의 공간구조는 상당한 변화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일련의 변화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환경의 기본적인 성격에 획기적인 변화가 발생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물리적 환경은 지금의 성격을 대부분 유지할 것이며, 다만 선택의 다양성의 측면에서 상당한 향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미래사회의 커뮤니티의 성격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더욱 변화가 초래되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다. 즉 정보·통신 위주의 사회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에는, 장소를 중심으로 하는 커뮤니티는 매우 희박해질 것이라는 것이 전망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즉 인간 삶의 형태와 내용이 획기적으로 변화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수반하는 커뮤니티의 개념도 전통적인 개념에서부터 훨씬 멀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커뮤니티 상은 1970년대에 이미 여러 학자들이 주장한 것이다. 맥클레나한(B. McClenahan)은 거리를 초월하는 커뮤니티 모델의 우위를 일찍부터 주장하였다. 즉 커뮤니티가 인간의 삶에 있어서 기초개념으로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꼭 지리적인 근접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즉 사회의 다양한 요구는 필연적으로 이동성(mobility)을 증대시키고, 인간관계가 물리적인 거리를 초월하는 상황에서 '관계'를 유지하고, 그것을 손상시키지 않으려는 열망이 존재하는 이상 커뮤니티 구성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논리를 전개하였다. 그는 전통적 커뮤니티에 대한 대안으로서 '의식의 집합'에 바탕을 둔 새로운 커뮤니티 모델을 제시하였다. 도시사회학자 웨버(M. Webber) 역시 일찍부터 이러한 모델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는, 거리와 공간에 대한 기존개념이 변화하는 현재, 컴퓨터 앞에서 간단한 조작 하나로 웬만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장소적인 커뮤니티는 더 이상 그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을 전개하였다. 그는 그것을 대신하는 새로운 모델로서 '근접성과 관계없는 커뮤니티(community without propinquity)를 제시하였으며, 그것이 오늘날의 커뮤니티를 규정하는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이 제기되던 시기에도 이미 수십 년 전의 일이었으므로 지금은 일종의 고전(古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막연하게 비장소적 커뮤니티의 강세를 예견하는 논의가 주류를 이루었고, 제시된 커뮤니티의 모델도 상당히 추상적이었던 반면, 오늘날에 제시되고 있는 커뮤니티의 모델은 좀더 구체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다. 새롭게 제시되는 모델의 핵심에는 당연히 통신네트워크가 자리하고 있다. 사이버 공동체와 네트워크 공동체 등이 이러한 사례의 하나이며, 재택근무와 네트워크가 연계된

미래의 일터 개념도 이러한 모델의 부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생각들은 분명한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즉 정보통신기술은 장소적 커뮤니티를 더욱 흐리게 할 것이며, 과거의 전통적인 커뮤니티는 근본적으로 흔들릴 것이라는 것이 그 가정의 핵심이다.

그런데, 필자는 이것과는 정면으로 반대되는 가정을 제시하고 싶다. 즉 미래사회가 정보사회로 진전(進展)하고 정보통신기술이 극단적으로 발전될수록, 인간의 커뮤니티 형성은 이웃과 장소에 더욱 의존하는 경향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가정이다. 이러한 가정은 일찍이 실존주의 건축이론가 노버그·슐츠(C. Norberg-Schulz)가 제시한 것이기도 하다. 그는 사회의 공간적 유동성이 증대될수록 인간의 주거(home)에 대한 애착은 더욱 증대할 것이라는 주장을 전개하였다. 즉 문명이 진보를 향해 진전할수록 인간성은 메마르고 거칠어지는데, 이러한 상황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웃을 찾게 하고, 뿌리내릴 수 있는 진정한 장소를 찾게 한다는 것이다. 하베이(D. W. Harvey) 또한 이것과 유사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즉 세상이 바빠지고 이동성이 증대할수록 장소는 인간에게 ‘안식처(haven)’로 작용하며, 인간은 그곳을 정신적·육체적 쉼터로 생각하는 경향이 증대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생각들은 미래에는 전통적인 공동체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것이라는 주장에 밀려서 그저 아주 작은 소수의 생각으로 간주되어 왔다.

우리는 미래사회에 대해, 모든 것이 첨단화된 사회, 고도의 물질문명이 지배하는 사회, 그리고 정보와 통신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사회를 연상하기 쉽다. 따라서 생활환경에 있어서도 고도의 하이테크가 지배하면서, 커뮤니티와 같은 개념은 구태의연 하여서 이러한 환경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편향적이며, 서구적인 생각이다. 역사에는 한쪽으로는 발전만 있는 것은 아니다. 서양에서는 역사적인 흐름을 선적(線的)인 것으로 보아서 역사에는 시작과 끝이 있다고 본다. 시간은 부단히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역행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동양에서 역사는 원(圓)의 개념으로 정의되어서 돌고도는 것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역사는 회귀할 수 있다고 본다. 발전과 진보는 원점으로의 회귀를 의미할 수도 있다. 따라서 동양적 관점에서의 진보는 근원적인 것, 역사적인 것, 본질적인 것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이러한 역사적 관점을 통해서 본다면 우리의 미래사회는 더욱 이웃과 장소에 의지하는 사회구조로 전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8. 장소성 - 미래의 커뮤니티를 위한 화두

미래의 커뮤니티는 단순개념으로 규정할 수 없는 것이다. 말하자면, 장소적 커뮤니티는 사라지고 비장소적 커뮤니티가 우위에 설 것이라는 가정은 일견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 실현여부는 불투명하다. 특히 우리와 같은 동양사회에서는 더욱 그것을 확신하기 어렵다. 아무리 정보통신이 발달하고, 세상 어느 누구와도 관계형성이 가능해지고, 자신의 집에서 모든 정보획득이 가능해진다고 해도, 인간에게는 직접적인 사회접촉을 통한 관계형성이 필연적으로 요구되며, 그것은 당연히 주변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이 없다면, 우리에게 도시와 주거환경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은 무의미하게 된다. 결국 미래에는 장소적 커뮤니티와 비장소적 커뮤니티가 둘 다 중요한 의미를 띠게 될 것이라는 가정을 염두에 둘 때, 모든 예상과 계획이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장소성이 다시 중요한 화두가 된다. 장소에 의지하고 그것에 애착을 가지는 것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이다. 말하자면, 인간은 장소를 통해 소속감과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 실존을 찾아가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장소는 항상 ‘내 마음의 상징’으로 존재하고, 내가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나를 존재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장소는 항상 ‘교류’와 ‘교재’를 위한 장(場)으로 인식된다. 장소는 오랜 기간의 나눔과 공유를 통해서 형성되는 지극히 사회적인 산물이다. 특정한 환경에서 인간의 교류와 교재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곳은 장소가 되기 어렵다. 따라서 특정한 환경 속에서 지속적인 인간의 만남이 발생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인간이 그곳에 심리적으로 속

하고 그곳에 애착을 가질 때, 그 환경에는 장소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장소란 진정한 '거주(dwell)'의 의미와 관련되는 것이다. 하이데거(M. Heidegger)에 의하면, '거주'의 어원은 '평화로움(in peace)'의 의미를 가지는 것인데 독일어의 '평화(frieden)'는 영어에서의 '자유(freedom)'와 같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장소는 '거주'와 관련되고 거주는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다. 환경 속에서의 '자유'는 여기저기 떠돌아다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속에서 어느 한 곳에 머물면서 마음의 안정과 편안함을 얻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은 아무 환경에나 머물거나 속하려 하지 않고, 오로지 '진솔한(authentic)' 환경에만 진정으로 속하려고 한다. 환경이 가식적이고, 안전하지 못하며, 역사적인 가치가 없고, 정성을 들여서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인간은 그곳에 속하려 하지 않는다. 결국 장소에 속하지 못하는 인간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결국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얻지 못하는 것이다. 떠도는 인간은 소속하지 못하며, 결국 커뮤니티 형성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커뮤니티의 형성은 장소성 회복이 전제가 된다. 오늘날의 도시환경에서 장소적 커뮤니티가 상실되고 있는 것은 도시환경 전반에 만연하는 장소성의 상실과 관련된다. 산업혁명 이전의 어느 도시에서도 풍요롭게 형성되어있던 장소성은 근대이후에 일반화된 비장소성에 밀려서 사라져버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오늘날의 도시환경 특히 오늘날의 주거환경은 완전히 실패한 환경으로 간주된다. 랄프(E. Relph)는 오늘날의 도시환경을 '비장소(placeless)적인 환경'으로 간주하였으며, 또한 도베이(K. Dovey) 같은 학자는 오늘날의 무미건조하고 대량생산된 주거환경에 대하여 '주거상실(homelessness)'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도베이는 오늘날 만연되고 있는 '주거상실' 현상의 배경으로서, (1)합리주의와 기술우선주의 (2)주거에 대한 상품화의 경향 (3)관료주의 (4)규모의 거대함과 빠른 건설의 속도 (5)공용공간의 파괴 그리고 (6)건축가들이 지니는 왜곡된 전문직업의식 등의 현상을 들고 있다. 말하자면, 합리적이고 기능적으로만 계획된 주택, 그리고 사고 파는 대상으로서의 주택으로는 인간을 위한 진솔한 주거환경을 구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효율적인 결정과정으로 대변되는, 관료주의가 주도하고 거대한 개발집단이 시행하는 속전속결의 대량생산의 수단으로 생성된 주거환경은 '장소'가 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사적공간과 공적공간의 구분이 너무나도 명확한 오늘날의 아파트와 같은 환경에서는 장소로서의 주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사용자의 세심한 요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엘리트적 사고를 지닌 건축가들의 손에 의해 생성된 주거환경은 상당한 문제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9. 커뮤니티를 담기 위한 미래의 주거환경

커뮤니티가 상실된 오늘날의 주거환경 속에 다시 그것을 스며들게 하려면 어떠한 새로운 주거환경이 필요할까. 그것에 대한 해답은 간단하고도 명쾌하다. 즉 앞서 도베이가 지적한 '주거상실'의 요인들이 모두 제거된 주거환경을 형성하는 것이다. '진솔함'을 담고 있는 주거환경만이 커뮤니티를 담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주거환경에 대한 계획의 목표는 명백하다. 미래의 주거환경 특히 집합적인 주거환경은 '즐겁게 살아가야 하는 장소', '개성의 표현이 가능한 환경', '개별성을 존중하면서도 모여 사는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서, 주거환경의 공간적인 범주에도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즉 인간의 주거를 더 이상 '주택(house)'으로 한정하지 않고, 사회적인 환경 또는 확대된 도시환경에까지 연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의 근원에는 장소와 지역을 단순히 지리적인 위치를 구분 짓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문화적 배경과 함께 인간생활의 구체적인 양식과 관련된 개념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주택을 커다란 환경의 일부로 이해하고 계획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만, 주거환경에 커뮤니티의 회복이 가능하다. 이러한 생각을 일반적인 전제로 하고, 필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태도가 미래의 주거환경에 필연적으로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첫째, 공유공간이 강조된 주거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오늘날의 도시에서 개개의 주거환경은 너무 고립화되어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는 커뮤니티를 담을 수 없다. 따라서 앞으로는 주거환경 계획의 가장 중요한 대상을 공유공간에 두어야 할 것이다. 공유란 하나의 대상을 여럿이 서로 나눠 가짐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러한 행위는 '잃음'과 '얻음'을 동시에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집합적인 주거환경에서 공간을 공유함으로써 잃게 되는 것은 생활의 독립성과 프라이버시일 것이며, 반대로 얻게 되는 것은 사회적 어울림과 서로 부대끼면서 느끼게 되는 인간적인 정(情)일 것이다. 결국 주거환경의 풍요로움은 이 공유공간의 다양함과 풍요로움에 있다고 할 것이다. 우리 주거환경에서 파악되는 중요한 현상은, 이러한 공유공간을 위해서 할애하는 면적이 너무나도 작고, 내용에 있어서도 빈약하기 그지없다는 것이다. 우리의 주거환경에서 공유공간이라고 이름 할 수 있는 공간이 과연 있거나 한 것인지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이것은 그동안 왜곡된 우리 주거의 공급방식에서 그 이유를 찾게 되는데, 아마 주거환경의 메마름과 황폐함은 여기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주거환경에 커뮤니티를 회복하려 한다면 바로 이러한 측면을 강조해야 한다.

둘째, 선택의 다양성이 있는 주거환경이 되어야 한다. 장소는 '자유'를 의미하고, 자유는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속에서 어느 한 곳에 머무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다양화는 선택에서의 자유를 보장하고, 나에게 어울린다고 판단하고 선택한 환경은 나에게 안정감과 만족감을 준다. 이러한 환경은 당연히 인간에게 애착심과 소속감을 부여한다. 마지못해 한 곳에 머물러 사는 인간은 현재의 환경을 항상 임시거처로 생각한다. 임시거처에 사는 사람은 이웃과 커뮤니티를 형성하는데 소극적이다. 우리 주거환경은 너무 심할 정도로 판에 박혀버렸다. 대도시는 지방도시는 상관없이, 그리고 평지든 구릉지든 할 것 없이 똑같이 지어지는 고층아파트들이 그 주범이다. 이것은 다양화를 주거정책의 주된 방향으로 잡고 있는 다른 여러 나라와는 대조적이다. 앞으로의 주거환경은 사회적 구성의 다양성에 대응해야 하며, 생활양식의 변화와 다양화에 대응해야 하며, 또한 인간의 개성화의 요구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앞으로의 주거환경은 다품종 소량생산의 경향으로 변화해야 하는 것이다.

셋째, 시간의 누적이 있고 역사성이 있는 주거환경이 되어야 한다. 말하자면, 세대를 이어가면서 조금씩 고치고 덧붙이면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즉, 주거환경에는 시간성이 있어야 하고, 변화의 여지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다소의 불확정성(indeterminacy)을 함축하는 주거환경이 바람직한 환경이다. 불확정성이 의미하는 바는, 예측할 수 없는 우리의 삶과 변화하는 삶의 양식으로 인해 발생되어지는, 예측을 벗어나는 행위까지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건강한 주거환경은 '의도된 비움'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비움은 여백을 의미하며, 채움을 위한 여유와 준비를 의미한다. 또한 이것은 완성된 존재를 의미하기보다는 변화의 여지를 가지는 존재를 의미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는 허물고 일부는 다시 만들어가면서 전체의 형상과 내용이 서서히 변화하는 환경이 좋은 주거환경이다. 이러한 환경만이 인간에게 애착심을 부여하며, 인간을 오랜 기간 수용한다. 그런데 오늘날과 같은 대규모의 계획과 공급의 체계, 그리고 사용하는 재료와 시공의 속도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주거환경은 분명히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빛을 발하는 환경이 되어야 한다.

10. 마치면서

커뮤니티는 인간의 진정한 '주거(dwell)'와 관련되며, 동시에 인간 내면의 평화로움과 관련된다. 따라서 커뮤니티를 상실한 인간은 진정한 주거를 상실하고,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떠돌이가 되어서 배회하는 존재로 전락하였다. 이것은 르네상스 이후의 주거환경의 구조적 변화와 산업혁명으로 인한

도시화 현상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피상적인 이유일 뿐이다. 인간이 환경 속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본질적인 이유는, 환경과 진솔한 관계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합리주의와 생산주의에 취해버린 인간은 환경을 더 이상 진솔한 관계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으며, 그것을 정복하고 파괴하면서 그것과 유리되었다. 따라서 환경은 스스로가 인간을 위한 장소가 되기를 거부하였으며, 주거환경에서 커뮤니티는 상실되었다. 이것이 인간이 진정한 주거를 잃어버린 이유이다.

다가오는 미래에 인간은 환경에 대해서 새로운 접근방법을 취할 것이다. 새로운 접근방법은, 인간, 역사, 문화, 생태, 순환, 조화, 공유 등을 화두로 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산업사회가 만들어낸 주거환경이, 우리의 삶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동시에 일정수준의 질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접근태도는 그동안 계획가들이 간과하였던 새로운 가치에 무게를 두고 있다. 즉 모든 가족들의 삶에 생기와 의미를 주며, 노인에게는 삶의 자취에 대한 향수를 달래는데 도움을 주고, 자녀들에게는 삭막한 도시 속의 자극들로부터 편안한 환경을 부여하며, 정서적 따스함과 진정한 마음의 고향을 부여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결국 앞으로의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있어서는, 원초적인 장소성을 지니고 있어서 의미가 풍부한 환경, 역사성이 풍부하게 표출되는 환경, 이웃과 어울리며 상부상조하는 환경이 중요한 화두와 목표가 될 것이다. 이러한 환경은 경제적인 공간, 효율적인 공간, 그리고 보기에 좋기만한 공간이 결코 아니고, 그 반대로, 의미로 가득하고 인간 존재와 진솔하게 관련된 공간을 뜻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1. 김우창, '깊은 마음의 생태학: 환경, 도시, 마음', 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 주최 환경심포지움 「21세기 삶과 주거환경의 재구축」의 발표논문, 1999, 11.
2. 김광현, '주택의 미래, 미래의 주택', 대한건축학회지 『건축』, 9703호.
3. 손세관, '근대건축의 도시상, 그 이상과 현실', 『이상건축』, 9703호.
4. _____, '사회성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집합주택의 과거와 현재', 『건축문화』, 9803호.
5. _____, '새로운 정신의 구체적 결과물로서의 20세기 주거환경', 『이상건축』, 9901호.
6. 진교훈, '주거의 철학적 의미와 그 위기', 『공간』, 1989년 8월호.
7. Appleyard, D.(1979), 'Home', in *Architectural Association Quarterly*, 11(2), pp.4-20.
8. Bachelard, G.(1969), *The Poetics of Space*, Boston : Beacon Press.
9. Dovey, K.(1987), 'Home and Homelessness', in *Home Environment*, Plenum Press, New York.
10. Haryward, G. D.(1975), 'Home as an Environmental Psychological Concept', in *Landscape*, 20(1), pp.2-9.
11. Norberg-Schulz, C.(1985), *The Concept of Dwelling*, New York, Rizzoli International Inc.
12. Relph, E.(1981), 'Phenomenology', in Harvey and Holly(ed.), *Themes in Geographic Thought*, N. Y., St. Martin's Press, pp.99-114.
13. Sohn, Sei-Kwan.(1986), *People, Place, and Community*,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